



18th ASIAN GAMES
Jakarta
Palembang
2018



'함께하는 평화, 함께여는 미래'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KBS와 함께!

2018년 8월 18일,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KBS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이자 한반도 평화의 장이 되길 바라며
고품격 중계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AG 3종목 남북 단일팀 구성, 동질감 회복할 기회”

8월 1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방송단 발대식'에서 양승동 KBS 사장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점에 스포츠는 어느 분야보다도 서로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45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총 40개 종목에서 465경기가 치러지며, 여자 농구와 카누, 조정 등 세 종목은 남북 단일팀이 꾸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S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약 90여 명의 방송단을 파견해 생생한 순간들을 시청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1,2TV에서는 아시안게임 주요 경기를 포함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종목을 중계방송할 예정이며, 모바일에서는 my K가 6개의 전용 채널을 편성해 KBS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아시안게임을 즐길 수 있다.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4년이 지나 공영방송 KBS의 해설위원으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설위원 손연재)

이영표 x 손연재 x 최병철 x 기보배 등 화려한 라인업

평창 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꾸준히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스포츠 중계방송 1등 채널' KBS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역시 탄탄한 중계진과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메인 MC는 이재성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연재가 KBS 리듬체조 해설위원으로 합류했다. 또, '축구 해설의 1인자' 이영표 해설위원과 '리우 올림픽 사우팅 해설'의 주인공 펜싱 최병철 해설위원, '해설도 국내급' 양궁의 기보배 해설위원 등 화려한 해설진과 서기철, 최승돈, 이광용, 강승화 등 믿고 보는 캐스터들이 감동의 순간을 함께한다.



아시안게임 방송단 발대식 / 8월 1일 신관 국제회의실

KBS 디지털서비스 대개편 나만을 위한 페이지를 만든다?!



KBS 디지털서비스국은 KBS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my K, 콩(KONG) 등 모든 디지털서비스를 전면 대개편했다. 개편 전의 KBS 디지털서비스가 KBS가 주체가 되는 페이지 구성이었다면, 이제는 시청자들이 스스로 취향과 필요에 맞춰 페이지 구성이 가능하다.

‘개인화’ 사용자의 니즈와 행태 따른 구성 가능

우선 ‘KBS 역사’, ‘KBS Travel561’, ‘KBS 건강’ 등 주제별 서비스 코너가 새롭게 선보인다.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별로 흩어져 있던 콘텐츠가 주제별로 제공되는 것이다. ‘KBS 건강’ 페이지에서는 KBS에서 방송된 의학, 건강 콘텐츠를 질환별로 재편집하고 아산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의학사전도 함께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KBS Travel561’에서는 구글맵을 이용해 세계 지도 속 원하는 여행 장소에 핀을 놓으면 선택 지역의 다양한 여행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KBS 역사’는 지난 20여 년간 방송됐던 KBS 역사프로그램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목차에 따라 1,200여 개의 동영상으로 재편집해 제공한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모임 검증까지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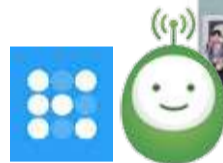
‘참여와 공유’ 함께 나누는 즐거움

‘참여와 공유’ 기능도 강화됐다. K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서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도 도입했고, 모든 콘텐츠에 댓글과 SNS 공유 기능을 만들었다. SNS 공유 기능도 대폭 강화돼 기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유가 가능해졌다. my K의 경우 보고 있던 VOD를 다시 보거나, 구독 콘텐츠를 만들거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순화’ KBS 홈페이지도 통일된 이미지로

웹과 앱의 화면도 단순화했다. 중복된 콘텐츠와 메뉴를 정리했으며, 아이콘과 텍스트 배치 등의 구성을 간소화하고 통일하였다. ‘KBS’라는 통일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 홈페이지 전반에 걸쳐 공통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해 한눈에 봐도 KBS 콘텐츠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했다.



INTERVIEW

“시청자 맞춤형 KBS, 시청자 참여 더욱 극대화할 것”

이번 대개편은 시청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청자에 우리가 맞춰간다는 것이다. 이번에 첫 발판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대형 이벤트 시에도 안정적인 트래픽 관리 가능

그동안 KBS의 디지털서비스는 정책과 전략의 부재 속 무계획적인 난개발 상태였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나 아산게임과 같이 사용자가 집중되는 대형 이벤트 같은 경우 발생하는 트래픽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운영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아마존과 계약 체결)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트래픽 관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 시청’을 넘어선 ‘참여 극대화’가 지향점

‘시청자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가장 큰 방향성이다. 예전에는 시청자와의 소통이라면 단순히 다시 보거나 방청 신청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으로 오면서 시청자들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다양한 참여를 하고 싶어 한다. KBS의 디지털서비스가 단순한 콘텐츠 조회수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다. 즉, 단순 시청을 넘어서 시청자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에는 예전처럼 ‘대중’이라는 것이 없다. 시청자들이 개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욕구를 평균적으로 만족시키

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욕구를 깊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KBS만의 콘텐츠가 경쟁력... 소셜라이브 활성화할 것

KBS만의 특징은 KBS의 콘텐츠다. 오랜 시간 우리가 제작해온 콘텐츠들 중 의미 깊은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해서 라이브 방송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접목한 사례로는 6월 20일 첫 시작한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 방송이 있다. 생방송이 끝난 뒤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했던 의사가 my K,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댓글로 질문하면 실시간으로 대답해주기도 한다. 오디오 콘텐츠도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 예로 8월 1일 첫 방송한 <월간 오페라-카르멘>을 들 수 있다. 라디오 모바일 앱 콩(KONG)과 my K를 통해 라이브 방송됐다. 이 방송 제작을 위해 디지털서비스국에서는 1FM 생방 스튜디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영상 촬영, 송출 등)을 한다. 이처럼 KBS 디지털서비스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진(PD, 기자)들과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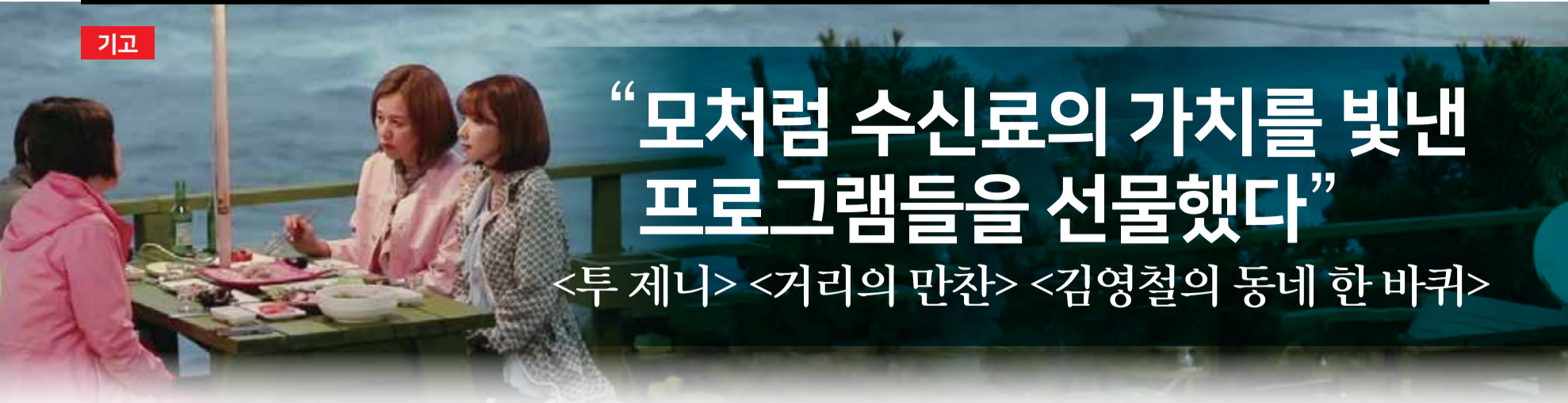


김형준 국장
디지털서비스국

기고

“모처럼 수신료의 가치를 빛낸 프로그램들을 선물했다”

<투 제니> <거리의 만찬>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달라진 KBS, 다양한 시도에 시청자 호평

지난달 방송된 뮤직드라마 <투 제니>, 파일럿 프로그램인 <거리의 만찬>과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향해 시청자들이 보낸 찬사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가 세 프로그램에 대한 호평의 원인과 앞으로 KBS가 고민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았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

참신함은 물론 공영방송의 가치를 전달하다

최근 TV에서 가장 신선하고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은 공교롭게도 모두 KBS 방영작이었다. 드라마 <투 제니>와 시사교양 <거리의 만찬>,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이하 <동네 한 바퀴>)다. 이른바 ‘올드한 이미지’의 KBS가 내놓은 프로그램들이 다른 감상도 아니고 ‘참신하다’는 인상을 전해준 것 자체가 흥미롭다. <투 제니>는 젊은이들의 풋풋한 사랑과 음악을 조화시킨 청춘 뮤직드라마다. 청춘물도 신선한데 뮤직드라

마라니 선도가 더 올라간다. <거리의 만찬>은 진행자들이 시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이야기를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시사 프로그램으로는 드물게 진행자를 모두 여성으로 채웠다는 점만으로도 혁신적이다. <동네 한 바퀴>는 ‘따뜻한 사람 지도로 돌아보는 동네 기행’을 표방한다. 토박이로 살아가는 이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려가는 여행 프로그램은 드물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방송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새로운 시도에만 있지 않다. 신선할 뿐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를 전달한다는 점이 호평의 핵심이다.

청춘에게 전하는 따뜻한 뮤직드라마 <투 제니>

먼저 <투 제니>는 비주류 청년들의 현실에 주목한다. 그동안의 뮤직드라마는 공연, 오디션 도전을 그리거나 예술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많았다. 이와 달리 <투 제니>는 특별할 것 없는 청춘들의 소소한 일상이 주 무대다. 드라마는 이들의 우울한 현실을 무겁게도 너무 가볍게도 그리지 않는다. 다만 하루하루 노래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청년들의 존재 자체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본다. 음악도 인상적이다. 인디 음악계의 숨은 명곡들을 사용하는데 그 비주류적인 정서가 드라마에 더없이 잘 어울린다. 공감 가는 노랫말과 멜로디는 주류 K팝 외의 음악을 들을 기회가 사라진 지상파에서 다양한 장르가 공존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여성의 시선으로 그려낸 공감의 풍경 <거리의 만찬>

<거리의 만찬>도 시사 이슈를 다른 시선으로 풀어내 호응을 얻었다. 방송인 박미선, 정의당 대표 이정미, 정치학 박사 김지윤 등 세 여성을 공동 진행자로 내세운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캐스팅의 파격을 넘어 여성들의 새로운 시선을 통해 시사 이슈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을 다룬 1회에서 13년의 긴 싸움 동안 하나둘 엄마가 된 노동자들과 또 그들의 나이는 어머니 이야기를 연결지어 큰 반향을 이끌어낸 것은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봤기에 가능했던 공감의 풍경이다. 그렇다고 여성이기에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만 갇힌 것도 아니다. 1회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은 진행자와 운동 당사자들이 나란히 걸으며 농성 공간을 돌아보고 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는 장면이었다. 눈높이를 맞추고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방향을 보지 않는다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풍경들이 <거리의 만찬>에는 존재한다.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고른 시선을 보내야 하는 시사프로그램으로서 큰 미덕이다.

사람이 있어 아름다운 서울 도보 기행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아날로그 감성 다큐를 내세우는 <동네 한 바퀴>는 얼핏 보면 새로움과는 거리가 먼 듯한 프로그램이다. 속도의 시대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동네의 아름다움을 느낀 걸음으로 발견한다는 콘셉트는 느리다 못해 한 장소에 머무는 요즘 여행 프로그램 트렌드에는 뒤쳐져 보인다. 그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기존 인문학 답사 프로그램을 연상시킨다. 다만 그러한 여행 프로그램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한다는 데 <동네 한 바퀴>의 진정한 힘이 있다. 프로그램 화자인 배우 김영철은 동네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때론 방앗간 주인이, 때론 양복점 손님이 되어보기도 한다. 그가 전달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 같은 거창한 가치보다는 그 동네의 진정한 주인공인 사람의 가치다. 방송은 거기에 ‘사람 지도’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쓴다.

서사의 한계·고른 역할 분배 및 이슈 배제 등 아쉬운 점도

아쉬운 점도 있다. <투 제니>의 경우 남주인공 위주의 시선으로 전개돼 여주인공의 이야기는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더구나 그녀는 기획사 대표인 기성세대로부터 노동 착취와 인권 탄압을 겪는 청춘이었기에 서사의 한계가 두드러졌다.



투 제니



거리의 만찬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거리의 만찬>에서도 아쉬움이 발견된다. 2회에 새 여행 동반자로 가세한 레인보우 지숙은 매끄러운 말솜씨와 센스가 돋보였음에도 군인들을 응원하는 등 종종 걸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다. 여성들의 시선을 강조한 프로그램이었기에 더 불편한 장면이다. <동네 한 바퀴>는 지나치게 따뜻한 시선이 문제였다. 제작발표회 당시에도 나온 지적처럼 익선동을 다루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이슈를 배제한 점은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었다고 본다.

신선한 시도와 함께 시청자와의 소통전략 고민할 시점

무엇보다 세 프로그램 모두 2부작 방영이었다는 점이 아쉽다. <거리의 만찬>과 <동네 한 바퀴>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 정규 편성 가능성이 있지만 <투 제니> 같은 단막극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최근 세 프로그램이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찬사를 받긴 했지만 진정한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단막극에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시청률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신선하고 실험적인 단막극을 통해 지상파를 외면하는 시청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투 제니> 같은 경우 삽입곡들이 인기를 끌고 화제성도 높았다. 뮤직드라마가 지상파에선 낯선 장르지만 웹TV 등 뉴미디어 세대에게 친숙한 플랫폼에서는 인기가 높은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소통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KBS인의 청렴도 상식은 몇 점?

임직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다음달이면 시행 2년을 맞이한다. KBS는 공직유관단체 및 언론사에 해당해 법률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지난 1월에는 소비위축 및 역차별 문제 등 여러 실정을 고려해 법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새로운 KBS가 국민에게 청렴한 언론기관으로 다가가기 위해선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허재우 국장과 함께 관련 사례를 법 적용대상,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부분으로 나눠서 Q&A로 살펴보았다.

법 적용대상 관련

Q KBS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외주 제작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 등은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인턴기자 등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된다.

Q 작가나 기상 캐스터 등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프리랜서, 계약직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작가·기상캐스터 등 명칭에 상관없이 KBS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법적용 대상이다.

부정청탁 관련

Q 기자에게 취재 기사를 수정·삭제해 달라고 한 경우 부정청탁인가?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14가지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기사 수정 또는 삭제는 대상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부정청탁이 아니다. 다만 기사 수정 또는 삭제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될 수 있다.

Q 예능·드라마 등 제작국 프로그램에 특정 상품이나 인물을 홍보해 달라고 청탁하는 경우는?

프로그램에 특정 상품이나 인물을 홍보해 달라고 하는 청탁은 14가지 대상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부정청탁이 아니다.

Q KBS 임직원이 일반 민간인에게 무료 방청권을 부탁 받고 담당 제작진으로부터 표를 구해서 준다면?

KBS 임직원이 일반 민간인의 청탁을 받고 담당 PD 제작진으로부터 무료방청권을 구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 중에 해당될 수 있어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

Q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약 2년이 지난 지금, 제도상 변화된 것은?

먼저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이 조정됐다. 외부강의 사례금도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KBS 등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의 경우 공무원에 준해서 외부강의 사례금을 적용

하였으나 현재는 상한액 없이 시간당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측 사보 토크 참조)

Q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와 4만원 선물을 동시에 받은 경우?

식사과 선물을 동시에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해서 가액 범위인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위 경우 합산금액은 7만원으로 5만원을 초과해서 위반이다. 단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식사 상한액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합산금액 10만원까지 허용된다.

Q 알고 지내는 직무관련자 결혼식에 축의금과 화환을 같이 보내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해서 10만원 범위 내에 가능하지만 축의금은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축의금 3만원과 7만원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축의금 7만원과 3만원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다.

Q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창생에게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제재대상(수수금액의 최대 5배 과태료)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다면 위반이 아니다. 단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 만원 이하)

Q 현재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외주사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아도 괜찮나?

현재 프로그램 제작 진행하고 있는 외주사로부터의 가액 범위 내 식사나 선물도 금지다. 직무관련자와 특정업무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목적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프로그램 제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외주제작사와 가액 범위 내의 식사나 선물수수가 가능하다.

Q 직무관련자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택배로 보냈거나 배우자가 대신 받은 것을 몰랐다가 한참 후에 알았을 경우?

선물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반환 및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반환 및 신고해야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Q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KBS 내부 행사에 오는 취재 기자에게 주차 협조나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재우 국장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홍보정책에 따라 제작발표회 등의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주차권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단, 양도·대여는 불가하다.

사보 토크

알아둬야 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개정안

	기존	현재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 등의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류	3만원	3만원
선물 금전, 유가증권 (상품권 등) 제외한 일체 물품	5만원	5만원 (농수축산물·가공품은 10만원) ※ 농수축산물·가공품은 원재료 함량 50% 이상
경조사비 결혼과 장례에 한정 축의금·조의금/ 화환·조화	10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외부강의 사례금	1시간 당 40만원 (총액 한도 60만원)	1시간 당 100만원 (총액 한도 제한 없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KBS로 청탁금지 및 부정근절 위한 '임원 청렴교육' 실시



지난달 27일 양승동 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주요 국장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 초청 청렴교육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청렴교육은 KBS 임직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KBS를 지향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 및 부패방지의 이해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초빙 강사인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국장(신고심사심의관)은 임원과 고위관리자의 청렴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직원들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 함께 만드는 KBS

KBS가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평화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를 기념하여 스페셜 CI(Corporate Identity)와 테마송을 제작했다. 테마송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주소년’으로 잘 알려진 13세의 오연준 군이다. 특유의 청아한 목소리로 이번 테마송에 참여한 오연준 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방송사인 KBS를 알리는 테마송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제주소년’ 오연준 테마송 제작 참여

오연준 군은 지난 2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올라 ‘올림픽 찬가’를 부르며 화제를 모았고,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던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환영만찬 자리에서故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고향의 봄’ 두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

KBS 새로운 테마송 ‘평화’

이번에 새로 제작된 테마송은 ‘함께 하는 평화, 함께 여는 미래’란 주제로 4가지 형태로 제작 됐다. 미래 지향적인 평화를 표현하기 위해 전자음을 효과적으로 배치한 메인버전을 비롯해 북한의 악기인 옥류금과 남한의 개량 가야금인 25현 가야금을 활용한 버전,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남측의 전통가야금인 산조가야금을 활용한 버전, 어쿠스틱 기타 등을 활용한 팝재즈 버전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3일 월요일 공개될 예정인 KBS ‘평화’ 테마송은 앞으로 다양한 곳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각종 남북교류 사업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경기 등 주요 행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INTERVIEW

KBS 대표 기상캐스터 3인방이 전하는 2018 폭염 이야기

1904년 국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다.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 연일 폭염에 대한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슈퍼 폭염’은 도대체 언제쯤 멈출까? ‘사상 최대’라는 말 그대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는 KBS의 대표 기상캐스터 3인방 이세라(뉴스9), 강아랑(뉴스광장, 페이스북 ‘날씨랑’), 김지호(뉴스7, 뉴스라인, 페이스북 ‘날씨지호’)를 사보가 직접 만나 이번 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번 더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강아랑 한마디로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프리카’, ‘서프리카’라는 말이 SNS나 일상에서 흔히 쓰일 정도로 더위가 극심하다. 급기야 지난 일주일은 적도 부근 도시들이 한국보다 더 낮은 기온을 보였다. 실제 낮 기온 예보를 보면, 지난 4일 방콕은 33도, 싱가포르 34도, 카이로는 35도인데 서울은 이보다 3도 정도 높은 38도다. 이번 더위는 한마디로 ‘폭염의 새 역사’다.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 않나.

날씨 전달할 때 어떤 점이 특히 힘든지?



강아랑 뉴스광장에서는 15~20분마다 날씨 출연이 반복돼 몸을 시원하게 식힐 겨를도 없이 계속 방송에 들어간다. 뉴스가 진행되는 두 시간 내내 땀이나 는 채로 방송을 한다고 보시면 된다.

‘서프리카’에서 KBS 기상캐스터의 하루는?



김지호 매일 매일 갱신되는 폭염 기록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까지 뜨거울 것인지, 비는 언제 오는지 많이들 물어보신다. 여름이 지나 가을에 접어들다는 ‘입추’도 지났지만 여전히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계속될 전망이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다보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자주 보여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면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댓글을 보면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게 된다.

더위를 피하는 특별한 꿀팁이 있다면?



이세라 얼마 전 9시 뉴스 원고를 쓰다가 문득 ‘폭염은 견디거나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차마 멘트에 쓰지는 못했다.(웃음) 요즘 같은 폭염에는 일단 실외보다는 무조건 실내, 바깥에 머무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을 생활수칙으로 삼고 있다.

폭염에 날씨를 전달할 때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이세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멘트 고민도 더 많아졌다.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며칠 전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날은 서울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데다 1994년 폭염 기록도 넘어선 날이어서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한 것 같다. 비록 날씨는 폭폭 찜도 ‘가장 쾌적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한다.





Korean Language Academy
Nepal S.T.E.P Edu Center

한류와 한국어, 그리고 KBS

‘KBS 공인’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아카데미가 नेपाल 수도 카트만두에 문을 열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베트남 하노이 센터에 이어 두 번째다. KBS 아나운서들의 노하우와 KBS 콘텐츠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교육기관이 생긴 것이다.

KBS 드라마·예능으로 한국어 배운다!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빠른 수치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KBS는 이런 점에 관심을 갖고 하노이에 이어 नेपाल에까지 한국어교육센터를 열었다. 특히 KBS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 예능, 다큐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들이 KBS 한국어교육센터의 강점이다. 또한 KBS 아나운서들의 구어체 연구를 바탕으로 생생한 한국어를 배우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앞으로도 한국어 수요가 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교육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어 나야~나! 국가공인 ‘KBS 한국어능력시험’

KBS한국어능력시험도 KBS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2004년 처음 시행된 ‘KBS한국어능력시험’은 2009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 응시생 70만 명을 넘기며 대표적인 한국어 평가 도구로써 ‘KBS한국어능력시험’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 현재 ‘KBS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KBS한국어진흥원의 박현우 원장은 “한국어 능력시험이 국가공인 자격을 얻은 뒤부터 자격 취득자들이 KBS뿐 아니라 타 언론사 입사, 경찰과 군 장병의 임용과 승진, 기타 공공기관 입사에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인정받으면서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KBS 아나운서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KBS의 ‘한국어 사랑’은 매달 발행되는 한국어포스터에도 나타난다. 한국어포스터는 평소에 우리가 헛갈리는 한국어들부터 한국어 바른 표기까지 놓치기 쉬운 잘못된 우리말을 짚어준다. 현재 KBS는 방송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어연구부를 두고 있으며,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이라는 공익적인 사업도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나운서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바른 우리말 알리기에 노력 중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2003년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는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이 있다.



INTERVIEW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발견해 보아요!”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은?

<우리말 겨루기>는 대한민국에 유일한 우리말로 풀어가 는 퀴즈 프로그램이다. 남녀노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출연해 즐겁게 우리말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의미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지만 헛갈리는 말, 잊혀가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소개해 우리말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다.

진행해 온 8년 동안 다양한 신조어, 외계어 등의 언어들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SNS에서 또 방송에서 신조어나 외계어, 잘못된 말, 줄임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뭐가 바른말인지도 헛갈리는 것 같다. 새로운 언어들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바른말에 대해 또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해 ‘작은 관심’만 있다면 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

방송인이라면 누구나 시청자들의 애정 어린 반응에 가장 보람을 느낄 것이다. <우리말 겨루기>를 보고 ‘우리말에 관심이 생겼다’, ‘아나운서의 꿈을 갖게 되었다’, ‘방송을 보며 병을 이겨냈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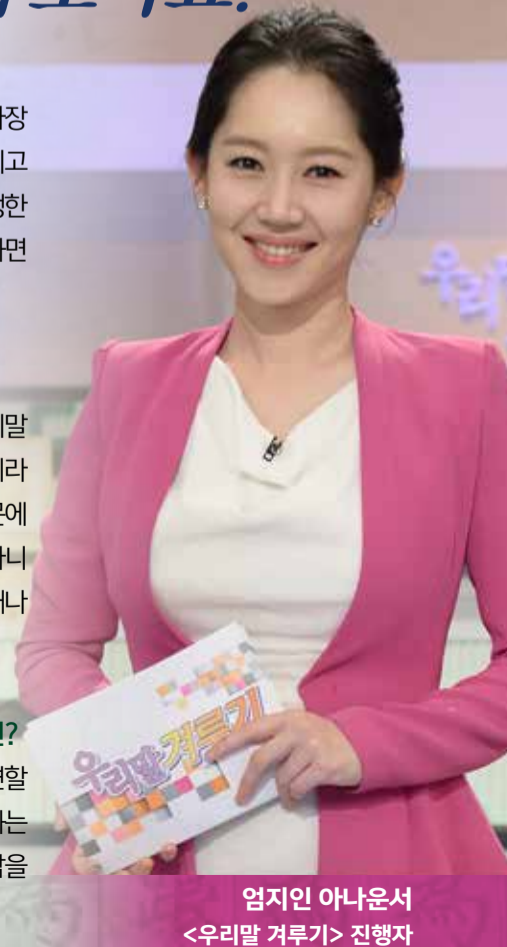
내게 큰 힘을 준다. 방송을 진행하는 순간순간이 특별했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출연진이 있다. 그분은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시고 구두를 닦으시며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이셨다. 출연 당시 다른 쟁쟁한 출연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당당히 우승을 하셨다. 녹화를 하면서 극본 없는 드라마를 시청한 기분이었다.

<우리말 겨루기>프로그램이 KBS 내에서 갖는 의미는?

우리말을 가지고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말 겨루기>이다.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K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시청률에 연연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의미를 갖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해 나갈 수 있고, 해 나가야 할 의무를 가진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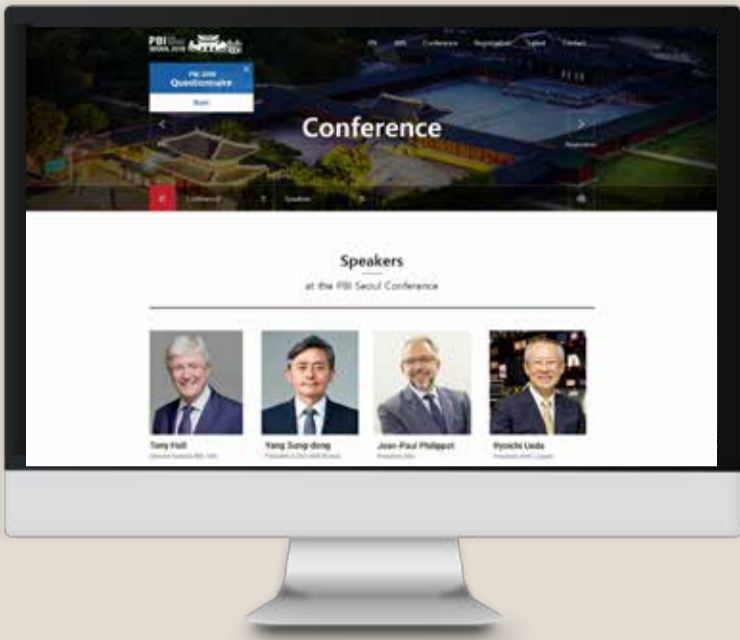
<우리말 겨루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우리말 겨루기>는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우리말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말 겨루기> 도전하세요! 또한 KBS 아나운서실의 전화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우리말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엄지인 아나운서
<우리말 겨루기> 진행자

단신 2018 PBI 서울총회 홈페이지 사전 오픈



KBS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는 PBI 서울총회(PBI Seoul 2018) 공식 홈페이지를 사전 오픈했다. 지난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KBS가 다시 주관하는 이번 총회는 영국 BBC의 토니 홀 사장과 일본 NHK 우에다 료이치 회장, 스위스 SSG SSR의 질 마르상 사장, EBU 유럽방송연맹 장 폴 필립포 회장 등 전 세계 20여 주요 공영방송사 사장들과 세계 주요방송 연맹 회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주제는 '플랫폼 대전환(Media's Next Big Bang; Strategic Initiatives for Connected Platforms)'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한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이번 2018 PBI 서울총회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의 위상과 저력을 전 세계에 크게 떨칠 수 있는 장이 될 예정이다.

공식 홈페이지 <http://www.pbi2018.co.kr/>

함께 만들어가는 직장문화 '4대 폭력 예방교육'



KBS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평등 정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화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달 23일부터 시작해 오는 8월 19일까지 진행되며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폭력예방교육'은 e러닝을 통해 수강 가능하다. 파견직 등 함께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별 집합 특별교육도 마련됐다. 부서별 집합 특별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시청각 교육 자료를 통해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인재개발원은 집합교육 시 필요한 활성화 예산도 1인당 5000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KBS는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신설해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동심 자극하는 '루나파크展: 더 디자인 아일랜드'



<굿닥터>, 美 이어 일본에서도 터졌다. 4회째 두 자릿수 시청률!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가 많지 않은 일본에서 리메이크 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일본판 <굿닥터>가 4회 연속 두 자릿수 시청률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2일 방송된 첫 회 시청률이 11.5%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한 일본판 <굿닥터>는 2회 10.6%, 3회 11.6% 그리고 지난 2일 방송된 4회는 10.6%를 기록했다. 해당 시간대에 편성된 후지TV 드라마가 4회 연속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판 <굿닥터>는 KBS원작 <굿닥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소아외과 의사를 꿈꿨던 주인공이 레지던트로 주위의 편견과 반대를 이겨 내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휴머니즘을 그리고 있다. 특히 주원이 연기한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의사 역에는 일본의 톱스타 아마자키 켄토가, 문채원이 연기했던 펠로우 의사 역은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로 잘 알려진 우에노 주리가, 주상욱이 연기했던 소아외과 부교수 역은 후지키 나오히토가 각각 맡았다. 일본판 <굿닥터>는 매주 목요일 황금시간대인 오후 10시 후지TV에서 10부작으로 방영되고 있다.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필립스탁, 알레산드로 멘디니, 하이메 아온, 에에로 아르니오 등 현대 디자인계의 전설로 꼽히는 디자이너 100여 명의 작품 430여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루나파크展: 더 디자인 아일랜드'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배움터 디자인전시관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테마파크를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공간 연출이다. 더불어 오감으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돼 앉아보고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게 했다. KBS 미디어와 인터파크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세계 3대 디자이너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거장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총 디렉팅을 맡았으며 크리스티나 모로치, 키아라 사비노 등 유명 큐레이터들이 기획에 참여했다. 또 미술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김충재, 차인철, 유지연 등 국내 디자이너들의 콜라보레이션 작품도 전시중이다. 이번 전시는 11월 6일까지 계속되며 KBS 임직원은 사원증 지참시 현장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호러와 멜로사이

러블리 호러블리
KBS 2TV 월화드라마

하나의 운명을 나눠 가진 두 남녀의 '호러+로맨틱'

폭폭 찌는 여름밤, 등골은 오싹하게, 마음은 두근두근 설레게 할 드라마가 떴다. 호러에 로맨틱이 더해진 '호러맨틱' 코미디 드라마 <러블리 호러블리>다. '뭘 해도 되는 남자' 필립(박시후 분)은 그야말로 온 우주가 돕는 슈퍼스타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행운이 따른다.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톱스타로 승승장구하며 해외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던 필립은 어두운 아우라로 가득 찬 그녀, 을순을 만나게 된다. 을순(송지호 분)은 필립과는 반대로 '뭘 해도 안 되는 여자'로 '불운의아이콘'이다. 입봉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 작가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선의로 사람들을 돕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는 등 사소한 불운도 그녀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이들은 한낱한시에 태어나 하나의 운명을 나눠 갖게 된 '운명공유체'. 한 사람이 행복하면 다른 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박시후♥송지호 '로코 장인'의 만남, 기대 UP

'시청률 제조기' 박시후와 '로코퀸' 송지호가 만났다. 지난해 <황금빛 내 인생> 최고 시청률 45.1%를 이끌었던 박시후는 '슈퍼스타' 필립 역을 맡았고 다양한 작품에서 대체불가 러블리한 매력을 뽐냈던 송지호는 '다크 러블리' 을순을 연기한다. 작품마다 화제를 불러 모았던 두 주인공의 환상적인 케미를 지켜보는 것도 <러블리 호러블리>의 즐거운 관전포인트다. 이 밖에도 을순을 향한 순정바라기 연하남 성중 역은 이기광이, 필립의 연인이자 최고의 여배우 윤아 역은 함은정이 맡았다. 을순의 오랜 친구이자 시청률 제조기, 인기 작가 은영 역은 최여진이 연기한다. 하나의 운명을 나눠 가진 두 남녀의 만남과 이들을 둘러싼 기이한 사건들, 범상치 않은 캐릭터들의 관계가 한여름밤, 짜릿한 호러와 달달한 로맨스를 함께 선물할 예정이다.

▶8월 13일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 2TV